

# 분양 성공률 100%… 세·광·대 청약, 소리없이 뜨겁다

〈세종·광주·대전〉

상반기 1순위 마감단지 54% 불과  
세종, 투기지역 등 지정에도 인기  
울산·전남·충북 1순위 마감 전무

을 상반기 세종시와 광주광역시·대  
전광역시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모두 1  
순위에서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  
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  
는 추세지만 이 세곳은 청약열기가 뜨  
거웠다.

2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  
데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총 202개 단  
지(임대 제외)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1  
순위에서 마감한 단지는 107개 단지로  
전체의 54.04%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 44.79%와 비교하면 10.16%포인  
트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는 세종·광주·대전이 모두  
마감됐다. 세종은 6개 단지, 광주는 9개  
단지, 대전은 3개 단지가 공급됐는데 각

〈상반기 인기지역 하반기 분양예정 리스트〉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일반분양)	전용면적(m <sup>2</sup> )
세종 4-2생활권 L3, M5블록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817	59~99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주공 재건축	1976(851)	미정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변동 8구역 재개발	1881(1441)	59~84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4차 재건축	499(138)	52~153

/자료=각 시(분양 정보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종하늘채 센트레빌' 조감도,

각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 중 세종과  
광주는 작년 상반기에도 1순위 마감률  
100%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세종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  
상지역에 모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분양  
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경쟁력이 청  
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경우 25개 단기 가운데 24개  
단지가 1순위에서 마감되며 1순위 마  
감률 96%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1순  
위 마감률(93.75%)보다 소폭 상승했  
다. 이어 대구가 23개 단지 중 19개 단  
지가 1순위 마감되며 82.61%를 나타냈  
다. 대구는 작년 93.33%에서 소폭 하락  
했다.

전국 평균인 54.04%의 1순위 마감률  
을 넘는 시도는 세종, 광주, 대전, 서울,  
대구, 전북 등 6개 지역에 머물렀다. 분  
양하는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이  
다. 삼성천, 고환 등이 가깝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9월 광주 서구 화  
정동에서 광주염주주공을 재건축해  
1976가구 중 85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광주월드컵경기장이 가깝다. 경기장 주  
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한화건설·한화시티은하반  
기·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변동 8구역  
을 재개발해 59~84m<sup>2</sup> 1881가구 중  
1441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가까이로  
유등천이 지나고 유등체육공원이 위치  
해 있다. 유천초, 제일고, 대신고 등 교  
육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2-3번지 개나리 4차를  
재건축해 52~153m<sup>2</sup> 499가구 중 138가  
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이 가깝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각

## 센터장 한자리 불러 증시콘서트… 권용원의 ‘열린소통’

〈금융투자협회 회장〉



현장에서

손 엄 지  
(파이낸스&마켓부)

금투협 '제1회 증시콘서트' 개최  
하반기 '증시 대전망' 주제 대화

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글로벌  
경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  
눴다.

이번 행사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고안한 자리다. 그동안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산발적으로 전망을 내놓  
고 있어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  
기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권 회장  
은 "냉철하고, 분석적이고, 탄탄한 실  
력에 기반한 예측 자료를 모아볼 필요  
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최 이유를 밝  
혔다.

4명의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각 분  
야별 하반기 전망을 발표했다. 기관투  
자자를 위한 발표에 익숙했던 이들이  
다른 리서치센터장, 금융투자업계 임  
직원 앞에서 발표를 하는 새로운 자리  
였다.

국내 증시 전망을 발표한 오현석 삼  
성증권 센터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연내 타결된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대  
선 사이클, 중국의 정보기술(IT) 제조  
업 강화 기조에 따라 무역분쟁을 내년  
까지 끌고가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한국 코스피는 2350포인  
트를 상단으로 움직일 것으로 됐다. 오  
센터장은 "한국 기업의 실적 조정 폭도  
3, 4분기 들어 완화될 것"이라면서 "투  
자전략은 보유, 혹은 조정 시 매수전략  
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센터장은 하  
반기 해외 주식시장 전망에 앞서 "지난  
1, 2년 리서치센터장으로서 충격적으  
로 다가왔던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의 등장이다.

조 센터장은 "이들 주식규모는 유럽  
과 아시아 경제 규모보다 커졌다"며 "이  
러한 패러다임은 100년 전 산업혁명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더라"고 했다.

이어 그는 "유명한 벨류(가치) 투자  
자인 워렌버핏도 애플과 아마존 주식  
을 사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패러다임  
변화를 받아들이고 5G, 사물인터넷,  
자율주행과 A.I. 등 FANG(페이스  
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나스닥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로 보면 "미국, 중국, 신흥국

(인도, 베트남) 등이 좋을 것"이라고 전  
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하  
반기 채권시장을 전망했다. 최 센터장  
은 "하반기 금리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채권의 시대는 계속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거시경제를 전망한 이창복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하반  
기 글로벌 경기는 맛밋한 흐름을 예상  
한다"며 "그 중에서 국내 경제는 최근  
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  
했다.

특히 "글로벌 교역량 감소에 더해 반  
도체 업황 둔화로 수출 부진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도체 수출 반등은 4분기  
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  
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조 센터장  
은 "코스닥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을 탄생시킨 IT 코리아의 산실"이라면  
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육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sonumji301@

## 하나금투, 스웨덴 풍력사업에 투자

기업 3곳과 유럽시장 진출 맞손

해 지원한다.

기존 유럽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시  
장은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투자 회사  
와 금융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하나  
금융투자는 현지 자산운용사와 지속적  
으로 접촉해 국내 발전 자회사가 직접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딜은  
프로젝트 건설 단계부터 한국중부발전  
을 참여시키는 한편 투자자들을 확보  
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였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한국  
중부발전이 사업다변화로 신규영역에  
진출하는데 있어 하나금융투자가 금융  
자문업무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

## 유럽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 양해각서 체결식

스웨덴 풍력사업 공동투자협약

2019.07.02(화)



2일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서 양영식 스티얼터너티브자산운용 대표(왼쪽부터),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 김진식 스프랫코리아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두가 협심하여 최적의  
파트너로 거듭나고, 강점을 부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 NH투자증권 50억 한도 ELS 모집

NH투자증권은 3일 오후 1시까지  
'원금부분지급형 스텝다운 주가연계  
증권(ELS)'을 5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원금부분지급형 스텝다운 ELS'  
는 기존 일반 스텝다운형과 유사한 구  
조이면서 손실을 -20% 수준으로 제한  
을 둔 원금 부분 지급형 상품이다. 스  
텝다운형 ELS를 원금 80% 수준으로  
보호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 만기도 기  
존 3년짜리 ELS가 일반적이었다면  
'원금부분지급형 스텝다운 ELS'는 만  
기를 1.5년~2년 수준으로 설계했고,  
조기상환평가도 매 3~4개월 수준으로  
짧게 해 시장 대응력을 높였다.

/채윤정 기자

## 하이투자증권

### 연 5.2% ELS 300억 모집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5일 오후 1시  
까지 주가연계증권(ELS)을 총 30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834호'  
는 코스피(KOSPI)200지수, 항셍지수  
(HSI), 유로스톡스(EUROSTOXX)  
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0%  
(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5.6%(연 5.2%)의 수익  
을 지급한다.

/손엄지 기자